

권력과 문화

권력은 저기 멀리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늘 마주치며 겪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권력은 작동하고 있다. 그것은 억압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푸코가 말했듯이 생산하는 힘이기도 하다.

홍성래_상지대학교 교수

권력이라는 말에서는 어쩐지 음험한 기운이 느껴진다. 그 기운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권력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과 좋은 것, 혹은 필요한 것과 옳은 것 사이의 틈이 바로 권력의 덧이다. 이 틈에 주의하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필경 이 덧에 빠지고 만다. 권력의 무상함을 경계하는 많은 경구들은 모두 이 덧의 무서움을 일깨워준다.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할 가능성'이라는 베버의 정의를 따르다면 권력 현상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권력은 작동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권력을 이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권력은 무엇보다 정치권력 혹은 국가권력을 뜻한다. 그것은 법으로 정당화된 강제력이고, 군사력이나 경찰력 같은 물리력으로 뒷받침되는 강제력이다. 한마디로 권력은 무서운 것이다.

그런데 권력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은 권력을 저기 멀리 있는 것으로 여긴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는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규제하는 힘이 권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권력현상을 찾아볼 수도 있거니와, 국가권력도 일상의 자잘한 관계와 계기들 속으

로 스며들어 작동한다.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푸코의 '규율권력'이다.

권력은 저기 멀리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늘 마주치며 겪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권력은 작동하고 있다. 그것은 억압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푸코가 말했듯이 생산하는 힘이기도 하다. 그것은 한 사회가 옳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개인이 받아들일도록 개인을 규율하고 순종하는 육체를 생산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곧 문화의 관점에서 권력을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거시권력과 구분되는 미시권력, 그리고 거시권력이 작동하는 미시적인 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내 친구 중에는 '양손잡이'가 있다. 이 친구는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왼손으로 젓가락을 쥐다.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고 야구공은 왼손으로 던진다. 본래는 '양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다. 그런데 많은 '왼손잡이'들이 그렇듯이 강제적인 교정을 받게 되면서 '양손잡이'가 되었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교정 주체는 어머니였다. 여기서 작동한 것은 왼손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아주 오래된 사고방식인데, 그것은 결국 '오른손잡이'의 사회를 유지하려는 '오른손잡이'의 권력이 낳은 것이다. 타고난 '왼손잡이'에 대

한 명백한 폭력이 전통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며, 이렇게 해서 '오른손잡이'의 권력을 문화적으로 합리화하게 된다.


우리의 공간문화를 예로 들어보자. 한국의 도시는 엉망진창이다. 넓지도 않은 보도에는 온갖 시설물이 들어서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황당한 것은 커다란 분전반함이다. 예컨대 서울의 어느 거리를 걷더라도 무지막지하게 큰 분전반함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놓여 있는 방식도 거리마다 제각각이다. 이 분전반함들은 한전의 막강한 권력을 상징한다. 현대사회는 전기가 사회이다. 근대화는 이런 사회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전기의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한전을 키운 박정희는 죽어도 한전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며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분전반함들이 그 권력의 누추한 속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우리의 도시는 자동차가 지배하는 도시이다.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곳으로 서울의 세종로를 들 수 있다. 광화문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길을 흔히 서울의 상징가로 꼽거나, 그 중에서도 세종로는 단연 서울의 상징가로 손꼽힌다. 그런데 이 길을 사람들은 건널목으로 건널 수 없다. 이 길을 건너기 위해 사람들은 지하도를 이용해야 한다. 땅 위는 오로

지 자동차의 몫인 것이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박정희의 근대화 에 따라 이렇게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이 길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의 근대화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 길은 보여주는 것이다.

'자동차의 권력' 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은 왼쪽으로, 차는 오른쪽으로' 의 문제이다.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달리게 되어 있는데, 사람은 왼쪽으로 다니라고 한다. 여기서 어떤 혼동이 생겨나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상식적으로 옳지 않을까? 여기에는 역사적 연원이 있다. '사람은 왼쪽으로' 라는 규칙은 일제의 유산이다. 잘 알다시피 일본에서는 차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간다. 이 때문에 '사람은 왼쪽으로' 라는 규칙이 만들어졌다. 해방이 되어 차에 관한 규칙은 미국식으로 바뀌었지만, 사람에 관한 규칙은 여전히 일제 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식민지 권력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버젓이 살아 있는 것이다.

권력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지금과는 다른 정치권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생활방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속에 권력은 깃들여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 권력은 필요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면 권력은 그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문명이 거둔 놀라운 성공과 함께 권력에 관한 좀더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다. 권력에 관한 생태학적 접근이 그것이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넘어서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를 강조한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자연의 파괴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일상 자체가 위협을 받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자연에 대한 우리의 권력이야말로 가장 무자비한 것이면서 가장 일상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 모순을 반성하고 해소하는 데에 다른 사회가 자리잡고 있다. 

권력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지금과는 다른 정치권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생활방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속에 권력은 깃들여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 권력은 필요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면 권력은 그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